경영 리서치

□ 일본의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이 글은 週刊東洋經濟(2001년 6월 30일호)에 실린 戶井朗人의 '會計基準の國際動向と日本'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이 글의 저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업회계 담당관으로, 일본의 국제 회계 기준 도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음

○ 일본의 국제 회계 기준 도입 현황

- 자금 조달의 국제화와 국경을 초월한 기업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적인 회계 기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회계 기준(IAS)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될 회계 기준으로서 그 요건을 점점 갖추어 가고 있음
  - 2001년 1월에는 국제 회계 기준 심의회(IASB)가 체제를 강화하여 재출발하였으며, 향후에는 국제 회계 기준의 책정이 기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에서도 회계 기준의 국제화 흐름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 이후 회계 기준의 급속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연결 회계의 개정, 현금흐름 계산서, 세금효과 회계, 퇴직금부 회계, 금융 자산의 시가 회계 등이 도입됨

- 현재, 고정 자산의 감손 회계, 기업 결합 회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심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의 회계 기준은 그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더욱 향상되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확립하게 될 것임
  - 적절한 도입을 위해 국제적인 회계 기준의 내용과 그 제정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일본의 기준에 적절하게 반영해 가는 것이 필요함

○ 감손 회계의 도입

- **감손 회계가 도입되면 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나 방치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자산을 처분하도록 요구받게 됨**
  - 이를 통하여 수익성 없는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가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구조 개혁이 촉진될 것이라는 측면도 기대됨
  - 또, 예상되는 장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에 대한 가부 판단의 기본으로서 단순히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산업 금융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

- **감손 회계는 사업에 관하여 투자의 대상이 된 고정 자산 또는 고정 자산 그룹에 대해 당해 고정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도 장래에 걸쳐 투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함**
  - 감손의 판단 및 감손액의 측정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의 평가와 자산의 그룹화(grouping)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대해 미국 기준, 국제 회계 기준 등에서 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업 활동 실태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제도의 도입에 참고함

- **일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의 판단과 기업의 경제 활동 실태가 적절하게 반영된 형태로 감손의 판단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 고정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의 계산에 대해서 미국 기준(FASB 공개 초안)에서 감손 판단은 '기업 자신이 그 자산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함
  - 그리고, 감손액의 측정은 '시장 참가자가 가지는 가정'을 반영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제 회계 기준에서도 고정 자산의 그룹화에 관한 구체적 사례에서 광업 및 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예로 들어, 기업의 자산 사용 형태와 사업과 관련된 규제 등의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광산 전체 혹은 버스 회사 전체를 자산 그룹으로 하여 회수 가능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기업 결합 회계의 도입

- 기업 구조 조정의 활성화로 인한 기업 결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업 결합의 실태를 적절하게 나타내고 관계자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 회계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됨
  - 일본은 2000년도에 기업의 조직 재편을 쉽게 하기 위해 회사분할법제도를 설립하는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2001년에는 기업 조직 재편 조세제도의 개정을 통한 세제 측면의 개정이 이루어져 3월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음

- 회계 정보 본래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성과 목적 적합성을 균형 있게 취하는 기업 결합 회계의 도입이 필요함
  - IAS에서는 기업 결합을 소유 주식의 결합과 신규 취득으로 구분하여 기업 결합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풀링법(pooling of interest, 지분 결합법)을 적용하고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방법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지분 풀링법의 적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비교 가능성은 정보 공시의 중요한 요건이지만,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요건으로 목적 적합성(relevance)이 있음
  - 비교 가능성만을 추구하여 규칙을 획일화하면 하나의 사실에 관하여 경영자가 가진 정보와 그 사실을 둘러싼 경제 실태를 회계 정보에 나타낼 수 없게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목적 적합성의 관점에서 지분 풀링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
  - 일본에서는 구미 제국과 달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순자산 및 영업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모든 당사자 기업의 사업 및 경영상의 장점을 계속 살려나가는 형태의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음
  - 이러한 형태의 기업 결합은 실질적으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제 회계 기준 도입 방향

-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자가 사업에 대해 가지는 전략과 판단을 적절히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어떤 의미에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투명성과 경영자의 판단간의 싸움 속에서 실제의 회계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
  - 이는 회계 기준상 획일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인지, 혹은 경영자가 가지는 내부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규칙을 만들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회계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규칙의 획일화만을 추진하는 것이 국내외의 투자가와 기업에게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회계 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 제도의 정립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해 국제 회계 기준과 미국 기준의 적용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임**
  - 현재, 일본의 공개 기업 약 3,500사 중 25개 사가 증권거래법상의 특례 기업으로서 미국 기준에 근거한 재무 정보의 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개사 정도가 일본 기준과 미국 기준 모두에 근거하여 공시를 하고 있음
  - 그리고, 해외 투자가에 대한 설명용으로 재무제표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기업이 수백 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기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시하는 기업은 영역된 재무제표에 警句(legend, 일본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를 표시하도록 구미의 감사법인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면서 일본의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적어도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미국 기준 및 국제 회계 기준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창혁 : chhyun@hri.co.kr ☎ 3669-4091)